DBpia

죽음 앞의 원효와 숭고의 서사, 「사복불언」

Wonhyo before Death and the Narrative of Sublimity, Sabokbureon

저자 (Authors)
김기호
Kim Ki-ho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 (195), 2021.6, 103-132 (30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195), 2021.6, 103-132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3927

APA Style
김기호 (2021). 죽음 앞의 원효와 숭고의 서사, 「사복불언」. 국어국문학, (195), 103-13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18 13:0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죽음 앞의 원효와 숭고의 서사, 「사복불언」

김기호*

차례

1. 머리말
2. 삼사라와 열반의 이중 시공구조
3. 죽음의 불쾌와 영원의 쾌: 숭고
4. 맺음말

〈국문초록〉

「사복불언」은 설화문학이면서 고승전이고 역사적 접근을 허락하는 사료이기도 하다. 의미의 다층성을 확보한 텍스트인 만큼 매우 문제적이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미학적 숭고를 해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사복의 이야기이면서 사복의 어머니의 추선을 포함한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흥미롭게도 죽음 앞에 선 원효의 존재론적 두려움과 그것의 극복을 통한 생명의 기쁨이 수신자인 구비전승자들에게 전해지는 원효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죽음의 크기와 위력을 포착하고자 한 상상력의 좌절로 인한 불쾌(displeasure), 그리고 석가모니불과 연화장의 세계 앞에선 원효의 희열과 쾌(delight)는 우리로 하여금 '불쾌-쾌'의 숭고를 대리체험토록 하기 때문이다. 논의를 요약하면 첫째 원효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의 구조는 삼사라와 열반의 이중적 시공간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죽음 앞의 원효는 삼사라와 열반의 대립을 매개한다. 매개가 가능한 것은 죽음 앞에 무릎 꿇은 한 나약한 인간 원효의 상상력이 실패를 하고 그를 통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관심을 돌리기 때문이다. 셋째 원효는 자기 발견과 자기 고양을 하는 과정에서 '불쾌(displeasure)-쾌(delight)'의 숭고 미학을 경험한다. 수신자인 우리 또한 원효의 대리체험을 통하여 자기 발견과 자기 고양 그리고 숭고를 경험한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핵심어 원효, 사복, 죽음, 숭고, 상상력, 쾌, 불쾌, 윤회, 열반, 두려움

1. 머리말

나이 열두 살이 되어도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못하여 그래서 사복(蛇福)이라 이름 지어진 이의 전기가 있다. 그것은 『삼국유사』 권4 제5 「의해」 편의 아홉 번째 수록된 「사복불언(蛇福不言)」이다. 「사복불언」의 말미에 일연선사는 '사복에 관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가 많지만 다 황당(荒唐)하니 우스운 것이며, 「사복불언」만이 사복이 세상에 대하여 영검을 보인 유일한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아울러 일연선사가 사복의 전기를 「의해」 편에 실었다는 것은 신라 10성(聖)의 한 분으로서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일연선사의 의중을 헤아려 보면 적어도 「사복불언」 이야기는 고승 사복에 대한 성자전설의 갈래로 귀속된다.

성자전설로서 「사복불언」이 정작 주인공 사복의 삶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고 흥미롭다. 오히려 이야기의 주된 사건선이 사복 모의 죽음과 그 의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복 모의 죽음이 원환(圓環)의 위계에서 중심에 놓이고 정작 주인공인 사복과 원효는 원환의 중심 밖에 위치한다. 사복과 원효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동하고 매우 간결하게 이끌어가지만 사복 모의 죽음의 힘에 밀려 결코 중심부를 장악하지 못한다. 사복 모의 죽음 그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 힘이 등장인물은 물론 이야기의 수신자에게까지 미친다. 그래서 「사복불언」은 사복의 삶이나 원효의 삶보다는 사복 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죽음이 원환 구조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며 사복과 원효는 죽음의 영향권 내에서 행동한다. 그런데 사건의 진행에 따라 죽음이 미치는 힘이 사복과 원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효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것 같다. 사복의 경우는 죽음의 힘을 점점 자기의 것으로 흡수하면서 동화되어 가고 느닷없이 사복은 죽음과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연화장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 죽음의 힘에 밀려 주변에 있던 사복이 생의 시간성을 완전히 흡수해 버리고 정지된 시간인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가 마침내 무시간의 연화장세계로 합해진다. 반면에 원효는 사복의 경우와는 다르다. 원효는 원환의 중심부에 자리한 죽음의 힘에 밀려 주변부에 위치하지만 동시에 사복과 같이 시간이 정지된 중심부로 흡수되지 않는다. 그는 일정한 궤도를 따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죽음을 마주하고 동시에 죽음의 의례를 집행하며 마지막으로 죽음의 끝을 관찰하고 자기의 세계로 돌아간다.

사복 모의 주검, 사복, 원효 중 우리의 대리체험자는 사복 모의 주검이 될 수도 있고 사복이 될 수도 있고 원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이야기의 구성이 원효의 행위와 그의 심리적·감정적 상태에 주도면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위가 없는 기점 상황 이후 이야기의 첫 장면은 "원효가 그를 보고 맞으며 예를 하였다."이다. 사복이 원효를 찾는 장면이므로 사복의 행위를 이야기에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야기는 원효가 그를 예로써 맞이한 것에 주목하고 원효의 태도와 감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의 최종 장면은 "원효는 그만 돌아왔다."이다. 사복 모의 주검과 사복이 연화장의 세계로 들어가 땅이 합하여지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끝을 맺지 않고 마지막 장면을 원효의 행위와 감정에 배당한다. 「사복불언」이라는 제명을 통해 일연선사가 사복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야기의 초점을 보면 사복의 이야기도 아니고, 원환 중심에서 사복 모의 주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사복 모의 이야기도 아닌 셈이다. 정작 이야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원효의 행위와 감정 선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 배치 때문인지 우리는 주요하게 원효를 통해 대리감정체험을 하게 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우리의 대리체험자로서 원효의 감정 선을 면밀히 따라가면 매우 특이한 감정 체험을 하게 된다. 불쾌라는 부정의 감정과 쾌라는 긍정의 감정 즉 '불쾌(displeasure)-쾌(delight)'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아름다움의 유쾌(pleasure)와 대가 되는 숭고의 감정이다. 「사복불언」은 우리의 대리체험자인 원효를 통해 숭고라는 미적 감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사복불언」의 이야기가 원효를 통해 체험하게 하는 숭고의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인식론적 고양이 일어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문제를 세우고자 한다.

첫째, 삼사라와 열반의 이항구조가 시공간적으로 어떠한 배치를 따르는가?
둘째, 죽음과 연화장세계가 어떻게 원효에게 숭고의 감동을 주는가?

「사복불언」은 사복의 특이한 매력과 원효의 등장, 죽음과 죽음의 의례, 윤회와 연화장세계 등으로 인해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이 이야기는 설화 문학이자 고승의 전기이며, 역사적 사회적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다층적 텍스트이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시간 순으로 살피면 이 이야기에 대한 관심의 출발과 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이동의 경로를 통해 「사복불언」의 의미 층들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문학, 역사, 불교사상 분야로 나뉜다. 문학분야에서는 원형상징연구[1]와 설화계통연구[2]가, 역사분야에서는 귀족들의 기득권 이데올로기로서 수용된 「사복불언」의 윤회사상에 관한 연구[3]가 있었다. 불교사상분야

1) 황패강, 「사복설화의 연구-우주의 나무 상징을 중심으로-」, 『문호』 5호, 건국대학교, 1969, 125~135쪽.
2) 김헌선, 「<사복불언> 설화 이해의 층위」, 『한국민속학』 31집, 한국민속학회, 1999, 151~170쪽.
3) 이기백, 「신라 초기 불교와 귀족세력」, 『진단학보』 40집, 진단학회, 1975, 22~39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에서는 업설과 화엄사상의 반영 양상[4], 포살수계와 『범망경』의 관계[5], 사복의 정체성 등에 관한 연구[6]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복불언」과 화엄사상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불교사상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동의가 된 것 같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전혀 관점을 달리하여 숭고 미학의 관점에서 「사복불언」을 살피고자 한다. 사실 「사복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원효가 한 말 즉, '생사고(生死苦)' 이 한 마디를 뇌리에 깊이 각인하고 있을 듯하다. 어찌 보면 이 말은 한국인의 마음에 깊이 간직된 생사관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본다. 그런 면에서 감동의 울림은 이 한 마디로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추가적인 설명은 이 울림에 방해가 될 듯도 하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죽음을 마주한 원효가 왜 죽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실패하고 마는지, 원효에게 있어 열린 연화장의 세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묻고 답하면서 원효의 심리적·감정적 깊이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원효가 '불쾌-쾌'의 미적 체험 곧 숭고 체험[7]을 하며, 그를 통해 수신자로서 우리 또한 숭고의 미적 체험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절대 허무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사가 곧 「사복불언」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즉 존재론적으로 죽음 앞에

4) 화엄사상과 관련한 연구로는 전호근의 「삼국의 불교사상 수용과 그 특징-업설과 화엄사상」(『한국불교학』 30집, 한국불교학회, 2001, 3쪽)과 김상현의 「사복설화의 불교적 이해」(『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165~196쪽)가 있다.

5) 박서연, 「사복설화에 나타난 신라인의 윤회관 - 『범망경』과 관련하여」, 『동아시아불교문화』 36집, 동아시아불교문화, 2018, 193~220쪽.

6) 명계환, 「린각 일연의 고승 인식- 『삼국유사』 「의해」 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8집, 한국불교사연구소, 2015, 144~175쪽.

7) 구비 텍스트를 숭고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심우장이다. 그는 「「바리공주」에 나타난 숭고의 미학」(『인문논총』 제67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149~186쪽)과 「전설에 나타난 숭고의 미학-<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국문학연구』 30집, 국문학회, 2014, 327~360쪽)의 연구에서 칸트의 숭고 미학 개념을 관점으로 세우고 구비 텍스트의 숭고 미학 읽기를 매우 선도적으로 시도하였다. 후자의 연구에서는 특히 인물전설에서 다양한 숭고 읽기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그래서 항상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늘 자신 없어 웅크리고 있는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위로의 목소리가 「사복불언」이며, 내면에서 지침 없이 한없이 고양되어 나아가면 죽음보다 훨씬 더 위대한 도덕적 존경과 위엄, 그리고 초월적 신성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사복불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2. 삼사라와 열반의 이중 시공구조

『삼국유사』 정덕본 「의해」 편에 수록된 「사복불언」은 제목 포함 총 307자로 완결 된 단편 고승전이다. 대체의 구성을 보면, 「사복불언」이라는 제목이 있고 이어서 곧 본 서사가 전개된다. 본 서사의 내용이 끝나면 본 서사를 기억하기 위한 증거 곧 도량사가 세워진 내력이 첨언된다. 이 보충 설명이 끝나고 나면 서술자인 일연이 28자의 찬(讚)을 붙인다. 이로서 이야기는 완결된다. 제목, 본 서사, 후일 담, 찬 등으로 구성된 것이 「사복불언」이다. 이 「사복불언」의 본 서사, 후일 담, 찬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 만선북리(萬善北里)에 과부가 있었는데,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다. 나이가 열두 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동(蛇童)[아래에서 사복(蛇卜) 또는 사파(蛇巴) 또는 사복(蛇伏)이라고 하였으니, 모두 동(童)을 말한다.]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니, 이때 원효(元曉)는 고선사(高仙寺)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원효가 그를 보고 예를 갖춰 맞이하였다. 사복은 답배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經)을 실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함께 장사지냄이 어떻겠소?”라고 하였다. 원효가 말하기를. “좋다”고 하였다. 드디어 함께 집에 도착하였다. 원효에게 포살(布薩)시켜 계를 주게 하였다. 주검 앞에 이르러 고축하기를,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니, 그 남이 괴롭도다.”고 하였다. 사복이 말하기를, “[그] 말이 번거롭다.”고 하였다. (원효가) 이를 고쳐서 말하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 를, “죽고 나는 것이 괴롭다.”고 하였다. 두 분이 [시신을] 메고 활리산(活里山) 동쪽 기슭으로 갔다. 원효가 “지혜의 호랑이를 지혜의 숲속에 장사지냄이 또한 마땅하지 않으리오?”라고 하였다. 사복이 이에 게(偈)를 지어 말하기를, “그 옛날 석가모니불은 사라수(娑羅樹)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 지금 역시 그와 같은 이 있어 연화장세계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띠풀을 뽑았다. [그] 아래에 있는 세계는 황랑(晃朗)하고 청허(淸虛)하며 칠보로 장식한 난간과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시체를 업고 함께 들어가니 그 땅이 갑자기 합쳐졌다. 원효는 이에 돌아왔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금강산(金剛山) 동남쪽에 절을 짓고 이름을 도량사(道場寺)라고 하여 해마다 3월 14일이면 점찰법회(占察會) 여는 것을 항례로 삼았다. 사복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다만 이것뿐인데, 세간에서는 많은 황당한 얘기를 덧붙여 핑계했으니 웃을 만한 일이다. 찬하여 말한다. 깊이 잠든 용이라고 어찌 등한하리, 떠나면서 읊은 한 곡조 간단도 하구료. 고통스러운 생사도 원래 고통 아니니, 연화장에 부휴하니 세계는 넓도다.[8]

등장인물은 사복, 원효, 사복의 어머니이다. 오브제는 ‘만선 북리 마을’, ‘고선사’, ‘사복의 집’, ‘상여’, ‘활리산’, ‘숲’ ‘띠풀’, ‘연화장 세계’ 등이다. 인물과 오브제를 규정하고 제약하는 서술어는 ‘원효를 초대한다.’, ‘포살수계를 한다.’, ‘상여를 메고 활리산으로 간다.’, ‘원효가 말을 한다.’, ‘사복이 말을 한다.’, ‘사복과 사복 모의 주검이 연화장 세계로 들어간다.’, ‘원효가 돌아간다.’ 등이다. 인물과 오브제를 규정하는 서술어에는 인물들 사이의 행위적 갈등

8) 蛇福不言. 京師萬善北里有寡女, 不夫而孕旣産. 年至十二歲不語亦不起. 因号蛇童. 下或作蛇卜又巴又伏等, 皆言童也. 一日其母死, 時元曉住高仙寺曉見之迎禮. 福不荅校勘 拜而曰, 君我昔日馱校勘 経牱牛今已亡矣偕葬何如. 曉曰, 諾. 遂與到家. 令曉布薩授戒. 臨尸祝曰, 莫生兮, 其死也苦. 莫死兮, 其生也苦. 福曰, 詞煩. 更之曰, 死生苦兮. 二公擧歸活里山東麓. 曉曰, 葬智惠虎於智惠林中不亦宜乎. 福乃作偈曰, 徃昔釋迦牟尼佛裟羅樹間入涅槃. 于今亦有如彼者欲入蓮花藏界寬. 言訖拔茅莖. 下有世界晃朗淸虛, 七寶欄楯樓閣莊嚴殆非人間世. 福負尸共入其地奄然而合. 曉乃還. 後人爲創寺於金剛山東南, 額曰道場寺, 每年三月十四日行占察會爲恒規. 福之應世唯示此爾, 俚諺多以荒唐之說托焉, 可笑. 讚曰. 淵默龍眠豈等閑, 臨行一曲沒多般. 苦兮生死元非苦, 華藏浮休世界寬.(원문과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이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가 사복 모의 장례 의식 절차와 그 절차에 따른 공간 이동, 그리고 그 공간마다에서 발화 되는 인물들의 말만을 서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위 갈등 구조에 따른 인과성이 두드러진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사복불언」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심리학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야기는 원효의 의식흐름과 감정변화에 밀착되어 있다. 기점상황 이후 전개되는 사건이 원효의 눈을 통하여 받아들여진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다. 인식론적으로 말하면, 외부의 물(物) 자체가 원효의 내적 시간(時間) 형식에 힘입어 수용되는데 이렇게 수용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구성되고 있다. 가령, 사복이 고선사에 있는 원효를 찾아가는 것, 사복이 원효와 함께 모(母)의 주검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 원효의 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활리산으로 상여를 메고 가는 것, 게를 읊고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는 것 등은 모두 원효의 눈을 통해 수용된 내용들이다. 원효 모의 집과 그곳에 놓인 주검, 상여, 활리산, 연화장세계 등도 원효의 직관을 통해 수용된 내용이다. 서술자가 이야기의 내용을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효의 눈을 통하여 들어온 내용만을 선택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순차적·계기적 구조는 원효의 행위를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구조의 분석 단위로 모티핌(motifeme)을 사용한다. 모티핌은 A. 던디스[Alan. Dundes]가 아메리카 인디언 설화의 논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V. 프롭[Vladimir Propp]의 복잡한 28개의 기능을 보다 단순화하여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이야기의 맥락적 의미 정의'가 모티핌이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사복불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Ⅰ. 원효는 고선사에서 사복을 예로써 맞는다.
Ⅱ. 원효는 사복과 함께 만선 북리 집으로 간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Ⅲ. 원효는 사복과 함께 상여를 메고 활리산으로 간다.
Ⅳ. 원효는 혼자서 고선사로 돌아간다.

위의 Ⅰ, Ⅱ, Ⅲ, Ⅳ는 모티핌 추출을 위한 원효의 행위항들이다. Ⅰ은 사복이 어머니의 장례 의식을 집행할 적임자로 원효를 떠올리고 그가 있는 고선사로 찾아 갈 때 원효가 예를 다하여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다. Ⅱ는 원효가 함께 장례를 치르자는 사복의 청을 허락하고 함께 그의 집으로 간 다음 집에서 모의 주검을 앞에 두고 포살수계하는 장면이다. Ⅲ은 원효가 사복과 함께 상여를 메고 장지인 활리산 기슭으로 향하는 장면과 원효가 사복 모의 윤회의 굴레가 끝났음을 선언한 후 사복의 게가 이어지고, 마침내 사복과 그의 모가 함께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Ⅳ는 원효가 모든 것을 목격한 후 고선사로 가는 장면이다. 원효의 행위가 전개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모티핌을 정의하면, Ⅰ은 고선사 장면, Ⅱ는 북리집 장면, Ⅲ은 활리산 장면, Ⅳ는 귀로(歸路)의 장면이다.

모티핌에 따른「사복불언」의 순차적·계기적 구조는 'Ⅰ. 고선사 장면 - Ⅱ. 북리집 장면 - Ⅲ. 활리산 장면 - Ⅳ. 귀로의 장면'이 된다. 이 구조의 각 모티핌과 이것에 종속되는 세부 모티프들을 보다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원효는 고선사에서 사복을 예로써 맞는다(정의: 고선사 장면)
a. 사복이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원효를 방문한다.
b. 원효가 예로써 사복을 맞이한다.
c. 사복은 전생의 인연을 들어 함께 자기 모의 장례를 치르자고 한다.
d. 원효가 사복의 제안을 수락한다.

Ⅱ. 원효는 사복과 함께 만선 북리 집으로 간다(정의: 북리집 장면)
e. 원효가 사복과 함께 북리 그의 집으로 간다.
f. 사복이 원효에게 포살시켜 계를 주게 한다.
g. 원효가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니, 그 남이 괴롭도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라 한다.
h. 사복이 그 사설이 복잡하다고 한다.
i. 원효가 “죽고 나는 것이 괴롭다”라 한다.

Ⅲ. 원효는 사복과 함께 상여를 메고 활리산으로 간다(정의: 활리산 장면)
j. 사복과 원효가 상여를 메고 활리산 동쪽 기슭으로 간다.
k. 원효가 “지혜 호랑이를 지혜 숲 속에 묻는 것이 역시 좋지 않겠소.”한다.
l. 사복이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라수 사이로 열반에 드셨는데 지금도 역시 그 같은 자가 있어 연화장 세계로 편히 들어가네.”라 한다.
m. 사복이 풀줄기를 뽑자 지하의 세계가 나타난다.
n. 지하의 세계는 황량하고 청허하며 칠보로 장식한 난간과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의 세상이 아닌 듯하다.
o. 사복이 시체를 업고 함께 들어가자 땅이 갑자기 합하여진다.

Ⅳ. 원효는 혼자서 고선사로 돌아간다(정의: 귀로의 장면)
p. 원효가 그만 돌아간다.

모티핌에 종속된 세부 모티프는 원효의 내적 시간[內的 時間] 형식을 통하여 차례차례 받아들인 내용이다. 이들 내용을 순차적 계기적 구조의 형식으로 나타내면, ‘Ⅰ. 고선사 장면(a-d)’-‘Ⅱ. 북리집 장면(e-i)’-‘Ⅲ. 활리산 장면(j-o)’-‘Ⅳ. 귀로의 장면(p)’이다. 이 구조에 일관 되게 적용되는 것은 내적 형식으로서 원효의 시간(時間)이다. 내적 형식으로서 시간의 역할은 직관에 포착된 외부의 물(物) 자체가 내면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의 정보가 앞으로 나란히 배열되도록 하는 것이다. 순차적·계기적 구조로서 ‘Ⅰ. 고선사 장면(a-d)’-‘Ⅱ. 북리집 장면(e-i)’-‘Ⅲ. 활리산 장면(j-o)’-‘Ⅳ. 귀로의 장면(p)’은 원효의 내적 시간 형식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사복불언」의 내적 형식으로서 시간은 세 가지 유형을 보인다. 첫째 유형은 원효의 시간으로 내적으로 수용된 외부 대상의 정보를 앞으로 나란히 즉 흐름의 형식으로 배치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흐름의 시간 형식이다. 둘째 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떤 기능을 갖는 것이 그 기능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대해서 적용되는 시간이다. 이것은 정지된 시간 형식이다. 죽음으로 인하여 외부 대상의 정보가 더 이상 내부로 수용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시간 형식이다. 죽은 사복 모의 시간은 정지된 시간의 형식이다. 셋째 순간과 영원이 하나가 된, 그래서 고요·통일·평화만이 있는 깊은 명상과도 같은 시간이 있다. 명상의 시간은 흐름의 시간과 정지된 시간이 모두 초월된 시간이다. 이것은 초월의 시간 형식이다.

「사복불언」의 각 장면에서 흐름의 시간 형식, 정지의 시간 형식, 초월의 시간 형식이 서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장면에 따라 하나의 시간 형식이 지배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시간 형식이 동시에 한 장면을 지배하기도 한다. 구조에서 각 장면을 지배하는 시간 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Ⅰ. 고선사 장면
원효의 시간: 흐름의 시간
사복의 시간: 흐름의 시간

Ⅱ. 북리집 장면
원효의 시간: 흐름의 시간
사복의 시간: 흐름의 시간
사복모 시간: 정지된 시간

Ⅲ. 활리산 장면
원효의 시간: 흐름의 시간
사복의 시간: 초월의 시간
사복모 시간: 초월의 시간

Ⅳ. 귀로의 장면
원효의 시간: 흐름의 시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네 개의 장면을 지배하는 시간은 동일하지 않다. 첫째 고선사 장면에서는 흐름의 시간 형식만이 장면을 지배한다. 반복된 일상의 흐름만이 지배하는 이곳은 또한 정주(定住)보다는 이동(移動)이 강조되는 곳, 특별한 의미 부여가 없는 곳이다. 이들 특징은 공간의 자질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 대해 삶의 공간[空間, space]으로 명명한다.[9] 둘째 북리집 장면에서는 흐름의 시간 형식과 정지된 시간 형식이 대비되는 가운데 서로 경쟁한다. 이중의 시간 형식이 경쟁하는 이곳은 또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이동보다 정주가 강한 곳, 일상보다 비일상이 강조되는 곳, 의미가 충만한 곳이다. 이들 특징은 장소의 자질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 대해 경계 장소[場所, place]로 명명한다. 셋째 활리산 장면에서는 흐름의 시간 형식, 정지된 시간 형식, 초월의 시간 형식이 얽히는 가운데 서로 경쟁한다. 삼중의 시간이 경쟁하는 이곳은 또한 삶과 죽음이 초월로 수렴되는 곳, 이동보다는 정주가 강조되는 곳, 일상보다 초월이 강조되는 곳, 의미가 충만한 곳이다. 이들 특징은 장소의 자질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 대해 초월 장소[場所, place]로 명명한다. 넷째 귀로의 장면에서는 흐름의 시간 형식만이 장면을 지배한다. 단일의 시간 형식만이 지배하는 이곳은 또한 정주보다는 이동이 강조는 곳, 반복된 일상이 강조되는 곳, 의미 부여가 없는 곳이다. 이들 특징은 공간의 자질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 대해 삶의 공간[空間, space]으로 명명한다.

이야기의 기점 상황을 보면 '어느 날 그[사복]의 어머니가 죽었다.'한다. 그런데 그 죽은 어머니는 "그대와 내가 옛날에 불경을 싣던 암소"였다고 한다.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아래에 있는 세계는 황랑(晃朗)하고 청허(淸虛)하며 칠보로 장식한 난간과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세상이 아니었다."고

9) 오늘날 공간(空間, space)과 장소(場所, place)는 구별 된다. 공간과 장소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의 자질이 풍요롭고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낯설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경우는 추상적 공간으로, 의미로 가득 찬 경우는 구체적 장소로 구분해 사용한다. 공간은 의미가 결여된 백지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장소는 의미로 가득 찬 가치의 중심지이다.(이-푸 투안 지음,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윤, 2005, 318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한다. 이들 사실에서 세 가지 불교 사상과 죽음 관념이 추출된다. 첫째는 전생의 암소가 현생의 사복의 어머니가 되는 생사윤회의 불교사상이다. 둘째는 그 어머니가 지금 장례 의식의 과정에 있다는 것은 무명(無明)의 세계에 윤회하는 한 기간 상태를 마감하고 중유(中有)[10]의 기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순간은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이행기이며 사유(死有)와 생유(生有)의 중간 기간에 위치한 죽은 영을 의미하며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인 중음(中陰) 상태이다. 셋째는 생사윤회로부터의 해탈과 정토사상이다.「사복불언」은 윤회사상과 중유 관념, 그리고 정토사상을 핵심 개념으로 한다. 이 개념들을 해당 시공간에 각각 배속시키면 다음과 같다.

Ⅰ. 고선사 장면 -- 삶의 공간 -- 윤회(輪廻)
Ⅱ. 북리집 장면 -- 경계 장소 -- 중유(中有)
Ⅲ. 활리산 장면 -- 초월 장소 -- 열반(涅槃)
Ⅳ. 귀로의 장면 -- 삶의 공간 -- 윤회(輪廻)

중생이 무명(無明)의 미혹(迷惑)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미계(迷界)를 끊임없이 유전(流轉)하는 일을 생사유전(生死流轉)이라 한다. 이 말은 일체중생이 자신의 지은 바 선악의 업인에 따라 천도·인도·수라·축생·아귀·지옥의 육도세계를 끊임없이 윤회전생(輪廻轉生)하게 된다는 뜻의 육도윤회(六道輪廻)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삼사라(samsara)의 수레바퀴, 또는 윤회의 수레바퀴이다. 삼사라의 개념을 각 층위의 모티핌에 적용하면, Ⅰ층위의 '고선사 장면, 삶의 공간, 윤회'는 삼사라로 수렴된다. Ⅱ층위의 '북리집 장면, 경계 장소, 중유'는 양가적 의미로 수렴된다. Ⅲ층위의 '활리산 장면, 초월 장소,

10)『시공 불교사전』(곽철환, 시공사)에 따르면, 중생이 살다가 죽어 다음의 어떤 생에 이르는 과정을 네 가지로 나눈다. 중유(中有),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가 그것이다. 여기서 중유는 죽어서 다음의 어떤 생을 받을 때까지의 49일 동안이며, 생유는 어떤 생이 결정되는 순간이며, 본유는 어떤 생이 결정된 후부터 죽을 때까지이며, 사유는 죽는 순간이다(四有, https://terms.naver.com, 2021. 6. 15 검색)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열반'은 열반으로 수렴된다. Ⅳ층위의 '귀로의 장면, 삶의 공간, 윤회'는 삼사라로 수렴된다.

본 장의 목적은 「사복불언」의 이야기 구조가 윤회와 열반의 이중 시공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를 살피면, Ⅰ과 Ⅵ는 삼사라의 수레바퀴 곧 윤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Ⅲ은 초월적 열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 윤회 vs. 열반은 이항대립의 관계이다. 반면 Ⅱ는 매개적 성격을 띤다. Ⅱ가 삼사라의 수레바퀴가 되어 윤회의 바퀴를 굴릴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초월과 열반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시공간 구조에서 Ⅱ는 Ⅰ과 Ⅳ의 성격을 띠지만 동시에 Ⅲ의 성격도 함축하는 양가적 매개자의 성격을 띤다. 요약하면 「사복불언」의 구조는 윤회 vs. 열반의 이항 대립적 시공간 구조이다. 구조의 매개항은 Ⅱ의 중유[中有, 경계 장소, 북리집 장면]이다. 이 중유는 양가성·애매성·주변성·비결정성·다가치성 등의 성격을 띤다. 중유의 이러한 성격은 윤회가 열반이 되는 혹은 윤회가 열반으로 방향잡아 나아가게 하는 구조적 도약의 논리와 운동성이다.

3. 죽음의 불쾌와 영원의 쾌: 숭고

중유가 매개하는 윤회와 열반의 시공구조에는 원효의 심리적·미학적 정서가 흐른다. 모티핌 Ⅰ[고선사 장면]의 a에서 원효는 매우 균형 잡힌 일상인의 모습을 보인다. a에서 사복이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원효를 방문하자 b에서 원효는 예로써 사복을 맞이한다. c에서 사복이 원효에게 전생의 인연을 들어서 함께 모(母)의 장례를 치르자는 제안에 대해 원효는 d에서 흔쾌히 수락한다. 모티핌 Ⅰ에서 원효의 일상에 파격을 준 것은 사복의 방문과 공동장례 제안이다. 사복의 방문에 대해서는 예로써 맞이한다. 장례 제안에 대해서는 흔쾌히 수락한다. 예의와 수락은 원효의 직관과 상상력, 그리고 오성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외부의 물(物) 자체가 제공한 자극을 충분히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복불언」의 구조에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구조의 매개항인 Ⅱ모티핌 곧 북리집 장면이다. 그 이유는 첫째 외부 대상 혹은 죽음과 원효의 상상력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외부 대상 혹은 죽음으로부터 원효가 좌절과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둘째는 원효가 좌절 혹은 고통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 곧 불쾌감(displeasure)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러한 좌절과 고통, 그리고 불쾌의 부정적 감정을 겪으면서 원효가 외부 세계가 아닌 자기 내면의 세계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식의 대전환으로서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轉回)이다.

죽음과 상상력과의 관계, 내부적 상처와 부정적 감정, 외부에서 내부로 인식의 전회 등이 모티핌Ⅱ에서 이야기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항이 순차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야기에서 이들에 대한 흔적들을 고고학적 유물을 발굴하듯이 조심스럽게 찾아서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당 모티핌의 전문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그리고 행위자의 행위와 말에 따라 미세하게 분절한다. 분절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복과 원효가 고선사에서) 드디어 함께 집에 도착하였다.(遂與到家)
② (사복이) 원효에게 포살시켜 계를 주게 하였다.(令曉布薩授戒)
③ (원효가) 주검 앞에 임한다.(臨尸)
④ (원효가) 고축을 한다.(祝曰)
⑤ (원효가)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니 그 남이 괴롭다."고 한다.(莫生兮, 其死也苦. 莫死兮, 其生也苦)
⑥ 사복이 "(그) 말이 번거롭다."고 하였다.(福曰, 詞煩)
⑦ (원효가) 이를 고쳐서 "죽고 나는 것이 괴롭다"고 하였다.(更之曰, 死生苦兮)

모티핌Ⅱ의 처음에서 사복과 원효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장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한다. ①에서 보듯 원효는 사복과 함께 고선사에서 북리 사복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집에 도착한다. ②에서 사복은 원효에게 포살수계를 하게 한다. ③에서 원효는 사복의 말을 집행하기 위해 "임시(臨尸)"한다. 즉 원효가 사복 모의 주검 앞으로 바싹 다가간다. 혹은 사복 모의 주검 앞에 원효가 무릎을 꿇는다. ④에서 원효는 주검을 향하여 빈다. 빈다는 것은 "축(祝)"의 해석인데 고축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⑤는 원효가 주검을 위하여 빈 내용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니 그 태어남이 괴롭다."이다. 여기까지는 사복의 장례 절차 진행과 원효의 장례 절차 수행에 따라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된다.

'사번(詞煩)'이라고 ⑥에서 사복이 원효에게 말한다. 원효의 ⑤의 말에 대해 사복이 ⑥에서 "그 말이 번거롭다."고 한 것이다. 이 '사번(詞煩)'의 발화를 기점으로 사복의 장례 절차 진행이 중지되며 당연히 원효의 장례 절차 수행도 중지된다. 중지에 이은 쌍방 침묵의 텅빔이 발생한다. 원효의 ⑦의 발화가 발생하기 전까지 ⑥의 발화 중지와 ⑦의 발화 시작 그 사이는 심연의 텅빔, 침묵의 공간이 발생한다. ⑤의 사(詞)에 대해 사복이 '번(煩)'이라 함으로써 이러한 텅빔의 침묵이 발생하기 때문에, '번(煩)'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침묵의 성격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기호 '번(煩)'의 시니피앙에 대한 시니피에가 무엇이냐에 따라 ⑥과 ⑦사이의 침묵이 무엇인지 결정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번(煩)'의 의미 작용을 롤랑 바르트의 '외시적 수준', '공시적 수준', '신화적 수준'으로 층위를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외시적 수준 곧 데노타시옹에서는 기호 '번(煩)'의 기표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서 기의를 살핀다. ⑥에서 사복이 한 말인 '사번(詞煩)'은 ⑤의 원효가 한 말인 "莫生兮, 其死也苦. 莫死兮, 其生也苦"에 대한 반응이다. 기호 '번(煩)'의 기표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서 기의는 '번잡하여 간단하지 않다(法省而不煩<淮南子>)', '장황하다(憂深 故語煩<舊唐書>)', '심하다(煩辱之事<周禮>)', '다투다(煩言)', '귀찮다. 번잡함(煩而不察<說苑>)' 등이다. 이것은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 기호의 언어체계에서 기의이다. 이 외시적 수준은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첫 번째 층위라고 하는데 바르트는 이것을 데노타시옹이라 한다. 이것은 단지 글자 그대로의 의미 혹은 상식적 의미이다. 사전에서 찾아보는 말들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번(煩)'의 데노타시옹, 곧 상식적·사전적 의미는 '번거롭다'이며, 이 평서문은 '간명하게 하라.'의 명령문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1차 체계로서 언어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사복의 '번(煩)'의 기의는 '말(표현)이 번거롭다.'이며 '말[표현]을 간명하게 하라.'가 된다. 원효의 말인 ⑦의 "생사고혜(死生苦兮)"는 표현론적(表現論的) 수준에서 소통된 ⑥의 '번(煩)에 대한 반응이다.

공시적 수준 곧 코노타시옹에서 형식(form) '번(煩)'의 개념을 살핀다. ⑥에서 사복이 말한 '사번(詞煩)'의 기호 '번(煩)'[기표+기의]이 형식(形式)이 된다. 이 형식(form)이 기표가 되고 개념이 기의가 된다. 기표인 형식과 기의인 개념이 합쳐져서 기호로서 의미작용이 된다. 형식과 개념, 그리고 의미작용은 신화체계로서 2차 체계이다. 이 체계에서 '번(煩)'의 개념은 '괴로워하다.'의 심리적 의미이다. '열이 나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다(病使人煩懣<史記>)', '마음 조이다. 안달하다(煩則喘喝<素問>', '번민하다(心煩於慮而身親其勞<司馬相如>)' 등이다. 그러므로 2차 체계로서 신화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사복의 '번(煩)'의 코노타시옹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고통을 느끼다.'이다. 이 수준에서 소통의 맥락을 회복하면 ⑤의 원효의 말은 사복의 마음에 고통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심리적 의미인 것이다. 원효의 말인 ⑦의 "생사고혜(死生苦兮)"는 심리적(心理的) 수준에서 소통된 ⑥의 '번(煩)에 대한 반응이다.

신화적 수준에서 '번(煩)'의 의미작용을 살핀다. 신화적 의미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⑤는 원효가 시도한 '죽음의 지배', '죽음의 포착'에 대한 표현이다.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애도뿐이다. 진정한 애도는 무엇일까?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죽은 자를 산자의 내면으로 내투사[받아들임]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애도로 본다. 곧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키는 것을 정상적인 애도로 본다. 반대로 죽은 자를 산자의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병적인 애도로 본다. 아브라함[Nicolas Abraham]과 토록[Maria Torok]은 죽은 자를 산자의 내면으로 받아들이지만 죽은 자를 완전히 내투사(introjection)하여 자기 내면으로 승화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 본다. 반면 그들은 자기 내면으로 내투사하는 과정이 실패하면 죽은 자가 중간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을 체화(incorporation)라고 하고 애도의 실패로 본다. 이 경우를 병적인 애도로 본다. 반면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아브라함과 토록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보면서 오히려 체화의 단계가 진정한 애도라 본다. 죽은 자를 산자의 내면과 외부의 경계에 모셔진 납골당처럼 머물게 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진정한 충성이라 보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애도의 관점 중 우리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프로이트의 관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장례식에서는 대체로 죽음에 대한 완전한 지배 혹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분리의 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산자와 죽은 자의 분리가 이루어질 때, 삶과 죽음이 분리될 때, 장례 의례는 잘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진정한 애도를 보증하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복이 ②에서 원효에게 포살수계를 요청한 것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완전한 분리, 또는 죽음에 대한 산자의 완전한 지배를 통한 애도를 요청한 것이다. ⑤에서 원효가 보인 일련의 주문은 이러한 애도 시도의 결과이다. 완전한 분리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지배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⑤에서 원효가 보인 주문은 죽음을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시도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⑥에서 사복이 말한 '번(煩)'의 신화적 의미작용은 원효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즉 ⑤의 그 정도 말로는 죽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지 못한다는 사복의 판정인 것이다. 장례는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이고, 장례식은 장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장례식에서 이루어지는 말은 기호의 2차 체계 곧 신화의 체계에서 보면 죽음에 대한 산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사복의 ⑥의 '번(煩)'은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애도의 관점에서 죽음을 지배하고자 한 산자 원효의 시도가 실패하였다는 것의 최종 선언이다. 그러므로 원효의 ⑤의 말이 죽음을 완벽히 정의하여 죽음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재탄생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원효가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니 그 남이 괴롭다[莫生兮, 其死也苦. 莫死兮, 其生也苦]"라 한 후 사복은 지체 없이 바로 말이 번다하다[詞煩]라고 문제 제기한다. 여기서 기호 '번(煩)'의 기표에 대한 기의가 세 가지 층위로 해석 되었다. 1체계 곧 언어의 체계에서 기호 '번(煩)'의 기의는 표현론의 면에서 '표현이 번다하다.'이다. 2체계 곧 신화의 체계에서 형식 '표현이 번다하다.'의 개념은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다.'가 된다. 그런데 이 심리적 개념인 '괴로워하다'는 신화적 의미작용으로서는 '죽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가만히 보면 ⑤와 ⑥ 사이에서는 어떠한 주저함이나 시간의 흐름이 감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복이 ⑥에서 '번다하다[詞煩]'는 문제 제기를 한 후 이어지는 원효의 대답인 ⑦의 "생사고혜(死生苦兮)" 사이에는 상당한 주저함이나 침묵이 감지된다. 신화적 의미작용 층위에서 보면 ⑤의 표현을 통해 주검을 완벽하게 포착·지배하려 한 원효의 시도가 사복으로부터 즉각 문제제기를 받기 때문이다. 원효는 주검을 앞에 두고 상상력을 통하여 그것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그 결과를 언어로 표현한다. 하지만 원효가 실패를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사복은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님을 '말이 번다하다[詞煩]'로 통보한다. 그러므로 ⑥번과 ⑦번 사이의 침묵에는 실패로 발생한, 그리고 표현되지 않는 원효의 심리적 좌절과 감성적 불쾌감이 깃든다.

주검 앞에서 선 원효는 왜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포착해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마는가? 왜 원효는 그러한 실패로부터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고통을 느끼고 불쾌해 하는가? 이 질문은 죽음 앞에 선 원효의 존재론적 한계, 죽음 앞에 선 우리의 존재론적 운명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에 대한 가장 가까운 답을 찾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인용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 고통, 두려워 할 수 있지요. 심한 고통일 경우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불행, 심각한 불행일 경우 우리는 역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도껏 그 고통과 불행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무리 두려운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 하더라도 나는 그 공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할 수 있지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어쩌면 그 공포가 닥쳤을 때 겪어 낼 수 있을지도, 감수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내가 없는 상태, 나의 죽음은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태입니다. 내가 없는 상태를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상태를 무언가를 느끼고 있고 뭔가를 항상 경험해 온 내가 어떻게 상상할 있을까요. 이처럼 나의 죽음 이 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겪거나 감수할 내가 없다는 것, 그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공포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11]

인용의 핵심 키워드는 ‘죽음’, ‘상상력’, ‘두려움’ 등이다. 이 세 개의 핵심 키워드에 따르면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은 늘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여 죽음을 포착하고자 한다. 인간의 상상력은 대체로 죽음을 포착하고 종합하는 데 무능함을 보이고 실패한다. 인간의 이성은 상상력을 시켜서 외부의 대상을 포착하고 종합해서 늘 넘어서려는 속성이 있다. 죽음은 외부에 있으며, 죽음은 상상력을 통하여 포착되고 내부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죽음의 무형식(無形式)은 결코 인간의 이러한 상상력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죽음의 포착에 대한 상상력의 실패

11) 장의준의 EBS 기획특강 “지식의 기쁨–상실한 것에 대한 애도”(https://www.youtube.com, 2021. 6. 15 검색)의 내용을 채록한 일부를 인용한다. 장의준은 이 특강을 통해 프로이트, 아브라함과 토록, 데리다로 이어지는 애도 개념을 바탕으로 타인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애도의 종류를 설명한다. 그의 저서에 제시된 저자 소개에 따르면 장의준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 철학과에서 레비나스에 관한 연구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안연구공동체, 철학아카데미, 이문회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에는 반드시 인간의 두려움의 감정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상상력이 죽음의 크기를 죽음의 위력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좌절을 느끼고 그러한 좌절을 통해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좌절, 두려움, 공포는 내적인 상처에 따른 아픔을 준다. 이러한 공포와 아픔을 겪으면서 인간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데 이 감정이 불쾌[不快, displeasure]이다.

사복의 포살수계의 요청에 따라 원효가 사복 모의 주검 앞에 임할 때, 그 때 원효의 상상력은 죽음을 포착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상상력은 죽음이 무엇인지 포착하고 종합하여 그 결과를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니 그 남이 괴롭다[莫生兮, 其死也苦. 莫死兮, 其生也苦]"로 표현한다. 사복은 죽음에 대한 원효의 상상력의 결과인 이 말에 대해 '번(煩)'이라고 하여 실패를 선언한다. 죽음의 크기와 위력에 대해 원효의 상상이 시도한 포착과 종합의 노력에 대해 사실 본인은 성공이라 보았을지 모르나 사복은 실패로 본 것이다. 외부 대상의 크기와 위력을 상상력을 통하여 포착·종합하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과 고통은 적지 않다. 사실 죽음에 대한 상상력의 무능이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상실감은 더 크다. 인간의 상상력이 죽음을 포착·종합하여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헛된 노력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심연과 위력 앞에 한없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효 또한 죽음을 포착하고 지배하여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본인은 그러한 노력이 성공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복의 선언을 통해 그의 생각이 결국 자기기만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번(煩)'을 통한 실패의 선언은 죽음 앞에 원효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그 결과 원효의 좌절과 두려움, 원효의 불쾌 등이 ⑥과 ⑦ 사이의 침묵의 공간을 유령처럼 배회한다.

원효는 ⑦에서 "생사고혜(死生苦兮)"라 한다. 신화적 층위에서 이 말은 사복의 기대를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복의 기대는 원효가 상상력을 통하여 죽음을 포착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생사고'는 사복이 '번(煩)'이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고 말한 이후 이루어진 죽음에 대한 원효의 상상이 포착한 결과이다. 원효가 '생사고'를 말하자 사복은 이 말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덧붙이지 않는다. 이것은 죽음을 포착하고자 한 원효의 시도가 성공했다는 묵시적 인정이다. 여기 ⑤에서 죽음을 포착하는 데 실패한 원효가 같은 공간 내(內) 시간의 차가 크지 않은 시점에서 ⑦의 "생사고혜(死生苦兮)"를 통해 죽음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경우 ⑤의 원효와 ⑦의 원효를 이원화하고 서로 다른 원효로 보면 이 두 발화는 가능하다. ⑤는 외부의 죽음을 향하여 상상력을 발휘한 원효의 목소리이다. ⑦은 내면을 향하여 이성(理性)의 목소리를 듣는 원효의 목소리이다. ⑤는 외부의 죽음을 향한 상상력의 무능과 한계를 보여 준 원효의 목소리이다. ⑦은 외부의 죽음보다 훨씬 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상상력에게 안도감을 주는 이성의 목소리이다. 이 안도감은 원효가 이어지는 기쁨의 숭고를 맛보는 것 중 첫 감정이다. 그리고 모티핌Ⅱ가 끝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찰적 상상력이 드디어 외부에서 내부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하며 이를 통해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성과 협력하기 시작한다.

원효가 ⑦의 '생사고'를 말하는 순간 곧 죽음에 대한 포착과 종합이 완료된 순간 북리집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장례 의례는 완료된다. 완료된 시점 이후 원효와 사복은 상여를 메고 활리산 동쪽 기슭으로 간다. 이곳에서 원효는 비일상적 초월의 세계를 만난다. 모티핌Ⅲ의 활리산 장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두 분이 [시신을] 메고 활리산(活里山) 동쪽 기슭으로 갔다.
b. 원효가 "지혜의 호랑이를 지혜의 숲속에 장사지냄이 또한 마땅하지 않으리오?"라고 하였다.
c. 사복이 이에 게(偈)를 지어 말하기를, "그 옛날 석가모니불은 사라수(娑羅樹)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 지금 역시 그와 같은 이 있어 연화장세계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d. 말을 마치고 띠풀을 뽑았다. [그] 아래에 있는 세계는 황랑(晃朗)하고 청허(淸虛)하며 칠보로 장식한 난간과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시체를 업고 함께 들어가니 그 땅이 갑자기 합쳐졌다.
e. 원효는 이에 돌아왔다.

활리산 장면이다. 이 장면은 의미로 충만한 장소(place)이다. 초월이 발생하는 신성의 장소[makom]이다. 신성의 장소인 활리산은 외재적 신이 편재하는 우주적 공간의 장소가 아니다. 활리산은 원효의 마음이며 마음 안의 먼 공간이시다. 북리의 집 마지막 장면에서 원효는 내면의 목소리 이성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성찰적 상상력이 방향 전환을 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계기이다. 활리산은 그러므로 상상력이 이성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창조적인·성찰적인 태도를 통해 찾아낸 마음이시다. 이 마음에서 상상력은 덕의 완성인 최상선(最上善)과 신을 요청하고 영혼불멸을 요청하는 최고선(最高善)을 만난다. 이 마음에서 상상력은 도덕법칙이 지배하는 신의 나라 목적의 왕국을 만난다. 활리산은 외재적 초월의 공간이 아닌 내재적 목적의 왕국이다.

내재적 목적의 왕국인 마음을 시간에 따라가면 첫째 원효는 위의 b에서 '지혜의 호랑이[智惠虎]', '지혜의 숲속[智惠林中]'을 만난다. 지혜의 호랑이는 육도 윤회도[Bhavachakra]의 설명에 나온다. 그림에서 수레바퀴 맨 밑에는 야마가 밟고 있는 호랑이 꼬리가 그려져 있다. 삼사라의 무상함과 그 실상을 깨달은 이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의 지혜를 성취함으로써, 일체의 두려움을 극복했음을 호랑이 꼬리는 의미한다. 곧 지혜의 호랑이는 육도윤회를 벗어나 해탈의 지혜를 성취하고 일체의 두려움을 극복한 존재에 대한 상징이다. 원효는 이성의 도움을 받아 사복 어머니의 주검에서 지혜의 호랑이를 만난 것이고 이 위대한 지혜의 인격체로부터 윤회의 고리를 끊은 최상선(最上善)의 존경을 경험한다. 원효가 사복 모의 주검을 두고 지혜의 호랑이라 명명하지만 이는 자신의 마음에서 만난 지혜의 호랑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원효의 성찰적·창조적 상상력은 사복의 성스러운 목소리의 안내를 받아 신이 요청되는 목적의 왕국을 만난다. 사복은 '석가모니불이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이가 있어 연화장 세계에 든다.'는 게를 읊는다. 사복은 '어머니'가 '석가모니불'이 됨을 알려준다.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는 것'이 '연화장 세계에 드는 것'임을 알려준다. 원효가 앞서 말한 지혜의 숲이 사라수 숲이 된다는 것을 또한 추론하게 한다. 원효는 사복의 목소리를 통해 세 가지를 만난다. 첫째 지혜의 숲을 통한 사라수 숲을 만난다. 둘째 사복의 어머니를 통해 곧 석가모니불을 만난다. 셋째 석가모니불이 사라수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사복의 어머니가 연화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만난다. 원효의 고양하는 성찰적 상상력에 대해 사복은 일종의 이성의 목소리로서 협력적 관계를 통해, 혹은 약간은 지배적 우월의 관계를 통해 상상력이 자기 발견과 자기 고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원효는 마지막으로 d에서 경이로운 모습을 목격한다. 사복이 띠풀을 뽑자 그 아래에는 황랑하고 청허하며 칠보로 장식한 난간과 누각이 나타난다. 인간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장엄이다. 사복이 어머니를 업고 들어가니 그 땅이 합해진다. 사복의 말을 통해 알려진 세계가 구체적으로 원효의 눈앞에서 전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묘사는 연화장의 세계 곧 극락의 세계 묘사이다. 비로자나불과 큰 연꽃 속에 일체의 국토와 사물을 간직한 불국토이다. 원효는 신이 요청되는 목적의 왕국에서 이 불국토를 목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연화장 세계에 대한 묘사에는 원효의 희열과 환희, 기쁨의 감정이 묻어난다. '황랑(晃朗)'의 '황(晃)'은 '밝다', '빛난다'이며, '랑(朗)'은 '밝다', '밝게 환하다', '유쾌하다', '활발하다', '소리 높다', '또랑또랑하다'이다. '청허(淸虛)'는 '맑다', '빛이 선명하다', '사념이 없다', '탐욕이 없다', '비워두다' 등이다. '장엄'은 '웅장하다', '위엄 있다', '엄숙하다' 등이다. 연화장 세계에 대한 서술자의 묘사에서 이를 지켜보는 원효의 오감의 감정이 묻어난다. 그 감정은 매우 큰 감동으로서 환희(歡喜)와 희열(喜悅)의 빛깔과 소리, 그리고 무게로 수렴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다. 그는 마음속에서 사복의 도움을 받아 인격적 존경과 초월적 신성을 만나고 그러한 만남으로부터 안전감과 기쁨 곧, 쾌(快)를 얻는다.

모티핌Ⅱ와 모티핌Ⅲ을 통하여 「사복불언」은 '불쾌(displeasure)-쾌(delight)'의 숭고를 완성한다. 모티팀Ⅱ에서는 죽음에 대한 원효 상상력의 무능력 때문에 두려움과 불쾌를 맛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를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는 원효로 하여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원효는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생사고'를 깨닫고, 죽음보다 더 위대한 이성에서 안도감을 얻는다. 그 결과 창조적·성찰적 상상력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통해 마음을 향한다. 죽음이라는 외부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내부의 이성으로 상상력이 향한다. 모티핌Ⅱ는 모티팀Ⅰ의 삼사라가 모티팀Ⅲ의 열반으로 방향 잡아 나아가게 하는 매개적 터닝포인트가 된다. 모티팀Ⅱ의 역전의 논리와 운동성에 힘입어 성찰적 상상력은 모티핌Ⅲ에서 위대한 인격체의 존경과 초월자의 신성을 만난다. 죽음보다 더 크고 위력적인 이성을 만나면서 안도감을 얻은 상상력이 보다 더 위대한 인격과 초월을 만나면서 그의 존경과 위엄, 그리고 신성으로부터 큰 기쁨 즉 환희와 희열의 감동을 얻는다. 전체적으로 모티팀Ⅰ에서 모티핌 Ⅳ로 이행하면서 원효는 윤회로부터 열반으로의 자기 발견적 고양을 이루는 동시에 '불쾌 - 쾌'라는 숭고의 미를 체험한다. 죽음 앞에 선 원효가 외부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내면의 마음에 깊은 창조적 성찰을 가함으로써 도덕적·초월적 최고선에 대한 자기 발견과 고양을 성취하고 이를 통해 '불쾌(displeasure)-쾌(delight)'의 숭고 미(美)를 체험한다. 「사복불언」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과감한 서사적 표현이다.[12]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론적 깨달음과

12)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종교라면 그것에 대한 과감한 서사적 표현은 문학이다. 종교와 문학은 언어를 두고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상호 극복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종교의 세계에 나아가기도 하고 종교는 언어를 매개[假言]로 진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문학적 해석을 매개로 종교적 해석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러므로 가능하다. 사실상 원효의 숭고 체험은 상상력이 이성의 도움을 받아 초월적 신성을 만나는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숭고의 눈물을 동시에 준다. 「사복불언」은 죽음의 무(無) 앞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가엾은 우리에게 격려와 희망의 목소리이다.

4. 맺음말

「사복불언」은 설화문학이면서 고승전이고 역사적 접근을 허락하는 사료이기도 하다. 의미의 다층성을 확보한 텍스트인 만큼 매우 문제적이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미학적 해명을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사복의 이야기이면서 사복의 어머니의 추선을 포함한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흥미롭게도 죽음 앞에 선 원효의 존재론적 두려움과 그것의 극복을 통한 생명의 기쁨이 수신자인 구비전승자들에게 전해지는 원효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죽음의 크기와 위력을 포착하고자 한 상상력의 좌절로 인한 불쾌(displeasure), 그리고 석가모니불과 연화장의 세계 앞에선 원효의 희열과 쾌(delight)는 우리로 하여금 '불쾌-쾌'의 숭고를 대리체험토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 기존 논의와의 차별성을 얼마나 획득하였는지, 분석에 사용된 개념과 이론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등 본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모든 문제를 겸허히 인정하면서 이들을 추후 보완하기로 한다.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효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분석하면, 삼사라 vs. 열반

것으로부터 느낀 기쁨의 감정이다. 이때 상상력이 만나는 초월적 존재는 분명 신성의 존재이지만 이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연구자의 믿음과 식견만으로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숭고의 체험이 반복적으로 원효의 설화에서 확인된다는 것이 문제적이다. 「원효의 오도설화」, 「사복불언」, 「낙산이대성 관음정취 조신」, 「자재암」 등에서 원효는 상상력으로 포착할 수 없는 거대함이나 위대함과 끊임없이 조우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크나큰 존재론적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기 때문이다. 앞으로 원효 설화의 숭고와 초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추후의 과제로 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의 이중적 시공간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복불언」은 구조적으로 네 개의 장면을 구성하는데 그것은 Ⅰ. 고선사 장면 - Ⅱ. 북리집 장면 - Ⅲ. 활리산 장면 - Ⅳ. 귀로(歸路)의 장면이다. 여기서 고선사 장면은 특별한 의미 부여가 약한 윤회의 공간(space)이며, 북리집 장면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중유(中有)의 장소(place)이며, 활리산 장면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열반의 장소(place)이며, 귀로의 장면은 특별한 의미 부여가 약한 윤회의 공간(space)이다. 이 장면의 구조에서 Ⅰ(Ⅳ)과 Ⅲ은 윤회 vs. 열반으로 이항대립의 관계이다. Ⅱ는 윤회가 열반이 되는 혹은 윤회가 열반으로 방향잡아나가도록 하는 논리와 운동성을 제공하는 매개항이다. 구조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사복불언」은 중유의 매개를 통해 윤회에서 열반으로 운동하는 도식을 경험하게 하는 이야기이다.

둘째 「사복불언」에서 윤회가 열반이 되게 하는 매개는 Ⅱ의 북리집 장면이다. 구조적으로 이 매개는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죽음을 넘어서보고자 한 한 나약한 인간의 존재론적 도전과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원효가 사복의 요청으로 행한 고축은 정작 사복으로부터 '번(煩)' 곧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번(煩)'의 기의는 '번거롭다.'이다. 2차적으로 '번(煩)'의 개념은 '정신적으로 괴롭다.'이다. 마지막으로 신화적 의미작용은 원효의 상상력이 시도한 죽음 지배 이데올로기의 실패를 의미한다. 상상력을 통하여 죽음을 포착하는 데 실패한 결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지며, 이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인 불쾌를 맛보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웅크리고 있던 원효는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 곧 이성의 목소리를 통하여 죽음보다 더 큰 존재를 확인한다. 이 목소리를 듣고 "생사고혜(生死苦兮)"를 표현함으로써 원효의 상상력은 외부 대상을 향하는 것을 과거로 하고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방향을 돌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한다.

셋째 원효의 상상력은 이성의 목소리를 통해 외부의 죽음보다 이성의 힘이 더 크고 위력적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상상력은 안도감을 얻는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다. Ⅲ의 활리산 장면에서 원효의 상상력은 창조적 성찰을 통하여 그리고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내면을 발견해 나간다. 원효는 일차적으로 지혜로운 호랑이를 발견한다. 지혜로운 호랑이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을 상징한다. 그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위대한 인격과 그에 대한 존경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어서 그는 지혜의 숲을 만난다. 이는 이어지는 사복의 목소리를 통해 그 정체가 드러난다. 사복은 그의 어머니의 주검이 곧 부처님의 열반이며, 사라수 숲 속의 세계가 곧 눈앞에 펼쳐질 연화장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준다. 원효는 사복의 어머니 주검을 앞에 두고 석가모니불을 만나며, 지금 여기 지혜의 숲과 부처님의 사라수 숲의 매개를 통하여 연화장의 세계를 만난다. 그는 초월적 신성을 만난 것이다. 원효의 상상력은 목소리를 통하여 이성을 만나고, 지혜의 호랑이를 통하여 높은 인격체를 만나고, 부처님과 연화장을 통하여 초월을 만난다. 이를 통해 원효의 상상력은 안도감, 존경의 기쁨, 신성의 환희 등을 맛본다. 이는 감동이요 큰 기쁨이다. 이와 같이 원효는 자기 발견과 자기 고양을 하는 과정에서 '불쾌(displeasure)-쾌(delight)'의 숭고 미학을 경험한다. 수신자인 우리 또한 원효의 대리체험을 통하여 이 자기 발견과 자기 고양 그리고 숭고를 경험한다.

참고문헌

곽철환,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김상현, 「사복설화의 불교적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165~19쪽.
김종국, 『(경산인의 정신적 지주)원효(元曉)』, 경산문화원, 1963.
김종국, 『삼성현 원효·설총·일연 스토리텔링 연구』, 대구대학교출판부, 2010.
김헌선, 「<사복불언> 설화 이해의 층위」, 『한국민속학』 31집, 한국민속학회, 199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151~170쪽.
명계환,「린각 일연의 고승 인식-『삼국유사』「의해」 편을 중심으로-」,『한국불교사연구』 8집, 한국불교사연구소, 2015: 144~175쪽.
박서연,「사복설화에 나타난 신라인의 윤회관 -『범망경』과 관련하여」,『동아시아불교문화』 36집, 동아시아불교문화, 2018: 193~220쪽.
심우장,「「바리공주」에 나타난 숭고의 미학」,『인문논총』 제67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149~186쪽.
심우장,「전설에 나타난 숭고의 미학-<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국문학연구』 30집, 국문학회, 2014: 327~360쪽.
이기백,「신라 초기 불교와 귀족세력」,『진단학보』 40집, 진단학회, 1975: 22~39면.
이-푸 투안 지음, 구동회·심승희 옮김,『공간과 장소』, 대윤, 2005.
일연,『삼국유사』
칸트, 백종현 역,『순수이성비판』, 아카넷, 2006.
칸트, 백종현 역,『판단력비판』, 아카넷, 2009.
칸트, 백종현 역,『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9.
황패강,「사복설화의 연구-우주의 나무 상징을 중심으로-」,『문호』 5호, 건국대학교, 1969: 125~135쪽.
해주(전호근),「삼국의 불교사상 수용과 그 특징-업설과 화엄사상」,『한국불교학』 30집, 한국불교학회, 2001: 1~22쪽.

사유(四有), https://blog.naver.com, 2021.6.15. 검색.
「EBS 기획특강-지식의 기쁨-상실한 것에 대한 애도」, https://www.youtube.com, 2021. 6.15 검색.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

Wonhyo before Death and the Narrative of Sublimity, *Sabokbureon*

Kim Ki-ho

Sabokbureon is a work of narrative literature, biography of a high priest, and historical material to allow for a historical approach. Being a text with its secured multi-layered significance, it is also very problematic. This study made an attempt at providing explanations about its aesthetic sublimity by taking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previous studies. It is a story of Sabok and about the funeral of Chuseon of his mother. Interesting enough, it is also Wonhyo's story transmitting his existential fear before death and his joy of life through its conquest to its receivers or oral transmitters. His displeasure with his frustrated imagination of trying to capture the size and force of death and his pleasure and delight before Gautama Buddha and the World of the Lotus Sanctuary offers vicarious experiences of sublimity in "displeasure-delight." In summary, first, the story centered around Wonhyo's acts is in a dual time and space structure between samsara and nirvana; secondly, Wonhyo before death mediates a confrontation between samsara and nirvana. It was possible because he failed in his imagination as a weak human being kneeling down before death and thus turned his interest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and finally, he experienced the sublime aesthetics of "displeasure-delight" in the process of self-discovery and self-enhancement. As receivers, we also experience self-discovery, self-enhancement, and sublimity through the vicarious experiences of Wonhyo.

Key words Wonhyo, Sabok, death, sublimity, imagination, delight, displeasure, samsara, nirvana, fear

본 논문은 2021년 04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06월 07일 심사 완료하고, 2021년 06월 21일 게재를 확정하였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8 13:09(KST)